

부안 진서면의 형성과 마을 지명 검토 - 곶소와 검모포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Formation and Basic Place Names of Jinseo-myeon, Buan - Focusing on Gomso and Geommopo -

김병남(Byungnam Kim)¹ | ¹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전라문화연구소장 | Kbnam@jbnu.ac.kr

목 차

1. 머리말
2. 곶소리의 태동과 곶소의 역할
3. 진서리 검모포와 주변 마을의 형성
4. 석포리와 운호리의 이해
5. 맺음말

초 록

부안군 진서면은 조선시대 부안의 변산 왼쪽인 좌산내면 지역이었다. 1914년에 변산의 오른쪽인 우산내면과 합쳐져 산내면이 되었지만 1963년에 좌산내 쪽에 진서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3년에 진서면이 되었고, 2009년에 곶소리가 분리되면서, 현재는 곶소리, 진서리, 석포리, 운호리의 4개 법정리에 23개 행정리 형태를 이루었다. 이처럼 진서면은 본래 변산면이었다가 분리되면서 형성되었기에 소관 마을의 부침과 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마을 지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우선 곶소리의 곶소는 고려 때부터 항구로 기능하였고, 조선 시기에도 주요 군사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곶소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는 섬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1938년부터 5년여에 걸쳐 연동-범섬-곶섬-까치섬[鵲島]을 연결하여 제방을 쌓아 곶소항을 만들면서 완전히 육지가 되었다. 진서리의 검모포도 고려의 주요 해상 기항지 중 하나로, 조선에서도 수군 기지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고, 조선 후기인 경종 3년(1723)에 새로운 군사 기지로 이전하면서 구진과 신진이란 지명을 남기게 된다. 이외에도 진서리의 연동, 백포 마을, 석포리의 석포, 용동 마을, 운호리의 운호, 관선, 마동, 작당, 왕포 마을 등이 유서 깊은 연원을 가져서, 부안의 역사·문화적 콘텐츠 구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입체적인 접근과 조사가 필요하다.

※ 키워드 : 진서면, 곶소, 검모포, 구진, 신진리

ABSTRACT

Jinseo-myeon, Buan-gun, was the Jwasannae-myeon region on the left side of Byeonsan Mountain in Buan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1914, it was merged with Usannae-myeon, on the right side of Byeonsan, to become Sannae-myeon. Afterwards, in 1963, the Jinseo local office was established in the Jwasannae area, and in 1983, it became Jinseo-myeon. And with the separation of Gomsori in 2009, it now consists of 23 Living unit administrative villages in 4 Official village names : Gomso-ri, Jinseo-ri, Seokpo-ri, and Unho-ri. In this way, Jinseo-myeon was originally formed by separating from Byeonsan-myeon, so despite the ups and downs and movements of the villages under its jurisdiction, most of the Basic Place Names were maintained. First of all, Gomso-ri's Gomso functioned as a port since the Goryeo Dynasty, and also served as a military base during the Joseon Dynasty. Gomso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an island connected to the inland by the difference in tidal range, and from 1938, over a period of five years, a dike was built connecting Yeondong-Beomseom-Gomseom-Kkachiseom to create Gomso Port, which became completely connected to the mainland. Jinseo-ri's Geommopo was one of the maritime ports of call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was continuously used as a naval bas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n 1723,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it was moved to a new military base, the place names Gujin and Sinjin were left behind. In addition, the villages of Yeondong and Baekpo under Jinseo-ri, Seokpo and Yongdong under Seokpo-ri, and Unho, Gwanseon, Madong, Jakdang, and Wangpo under Unho-ri show that the villages have a long history. Therefore, a more three-dimensional approach and investigation are necessary, as it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establishment of Buan's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 Keywords : Jinseo-myeon, Gomso, Geommopo, Gujin, Sinjin

1. 서론

부안군 진서면은 조선시대 부안의 변산 왼쪽인 좌산내면(左山內面)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변산의 오른쪽인 우산내면(右山內面)과 하서면의 일부 마을을 편입시켜 산내면으로 개편되면서 도청리, 격포리, 마포리, 운산리, 지서리, 대항리, 중계리, 진서리, 석포리, 운호리 등의 마을을 관할하였는데 1963년에 좌산내 쪽에 진서출장소가 설치되고, 1983년에 진서리, 석포리, 운호리가 진서면을 이룬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에 진서면 진서리에서 면소재지가 있는 곰소리가 독립된 법정리로 분리·설치되면서, 현재는 곰소리, 진서리, 석포리, 운호리의 4개 법정리에 소속된 23개 행정 마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¹⁾

본 연구는 진서면을 구성하는 법정리와 행정리의 지명에 대한 유래와 의미를 추적해 보려는 것이다. 진서면은 면의 형성과 함께 소관 마을의 부침과 이동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곳이다. 따라서 진서면 4개 법정리에 속한 기초 지명을 추적하는 것은 마을의 역사·문화적 연원 탐색의 자료를 세밀하게 규명하여 보존을 지속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 곰소리의 태동과 곰소의 역할

곰소는 『호구총수』(1789)에는 좌산내면 웅연리(熊淵里)로 나온다. 그런데 이 곰소라는 지명의 연원은 더욱 오래전부터 나타난다.

倭五十餘艘 來泊熊淵 踰狄峴 寇扶寧縣 毀東津橋(『고려사』 113, 「열전」 27, 나세)

黔毛浦在扶安縣南熊淵(『세종실록』 151, 지리지 전라도 관방)

熊淵島[在縣南五十一里 小島潮退連陸 有魚梁](『동국여지집』 5上, 전라도 부안현 산천)

熊淵島[在邑西 陸路四十五里 水路五里](『호남읍지』, 부안현 도서)

熊淵島[潮退連陸](『여도비지』 12, 전라도 부안현 도서)

熊淵島[西南六十里 潮退連陸] 虎島[一云凡島 西北海中](『대동지지』 11, 전라도 부안현 도서)

『고려사』에 따르면 곰소는 이미 고려 말기에 항구의 기능을 소화하는 지역으로 나온다. “왜구 50여 척이 곰소에 정박하고 적현을 넘어 부령현을 노략질하고 동진교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고려 우왕 초에 부안 일대에 침입한 왜구의 최초 정박지가 곰소(熊淵)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왜구가 곰소(熊淵)→적현→부령현→동진교까지 다다른 것은 단순한 해안가의 약탈이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침탈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14세기 중~후반 시기에 걸쳐 대규모의 왜구가 해상의 몇몇 섬에 정박하여 그곳을 은신처로 삼아 연해 및 내륙 고을에 연속해서 방화와 노략질을 일삼았던 것과 연관된다. 당시 왜구는 섬의 규모나 육지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적합한 섬을 연해 및 내륙 고을의 장기간 약탈을 위한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2915호,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2-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이와 같은 왜구 침탈의 성격 변화는 일본 남북조시대(1336~1392) 말기에 북조 세력이 규슈[九州] 지역을 정복한 후 그 근거지를 자신들의 영지에 편입시킴에 따라 다수의 현지 세력들이 본거지를 잃게 되면서 일시적인 피난처를 찾아 고려로 쇄도한 때문이다.²⁾

따라서 이러한 왜구의 변화는 고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불러왔고, 그 결과 우왕 4년(1378) 8월부터 왜구가 은신한 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독립적 지휘 체계 아래 독자적으로 수상전을 전담하는 수군력 증강과 함께, 화약 무기의 활용은 1380년 이후 왜구에 대한 공세적 방위 전략으로 전환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고려 수군은 왜구 방어와 격퇴 과정에서 도서 지역의 군사적 가치를 인지하였고³⁾, 그 결과 수군만호부가 연해의 여러 요지에 다수 설치되어 지방에서의 대응 능력을 증가시켰는데⁴⁾ 이러한 전략적인 흐름과 수군 역량 정비는 조선 초기로 이어져 다수의 섬과 주변 지역에 군사 기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위의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검포포가 부안 현 남쪽 웅연에 있다”고 하여 관방(關防)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연관된 때문이다. 그리고 왕권이 안정화되던 세종 때에 전라도 연해 지역의 읍성이 본격적으로 축조되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모두 부안읍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읍성의 축조는 백성들의 편의와 왜구의 침탈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체계의 일환이기도 하였다.⁵⁾ 이처럼 고려 말~조선 초기에 이르는 대외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고평소가 중요한 군사 전략적 가치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고평소라는 지명은 전략적 가치보다는 단순히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는 섬 지역이라는 사실만 강조될 뿐이었다. 이것은 유형원의 『동국여지』에 웅연도가 “부안현 남쪽 51리에 있는 작은 섬[小島]으로 썰물 때 육지에 연결되며 어량이 있다”고 하였고, 『여도비지』(1853)에도 웅연도는 “썰물 때 육지로 이어진다”고 적었으며, 『대동지지』(1866)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호남읍지』(1793)에도 “부안읍에서 서쪽으로 육로 45리, 수로 5리에 있다”라고만 나온다.

하지만 해로 상 중요한 정박지로서의 기능은 여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웅연리(熊淵里)로 나오는 것이 단순한 지명 등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長城 · 高敞大同米 不於法聖捧納 而捧納於沙浦 到熊淵始爲裝載 每不及於漕倉發船之期(『정조실록』 46, 정조 21년 6월 4일)

五月初十日 始爲發船 到扶安熊川(『각사등록』 충청수영계록, 고종 5년 6월 25일)

위의 정조 21년(1797)의 “장성 · 고창의 대동미를 법성포에 납입하지 않고 (흥덕) 사포(沙浦)에 납입하는데, 고평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포장하여 싣게 되므로 매번 조창(漕倉)으로 발선(發船)하는 기한에 미치지 못합니다”는 내용으로 보면, 고평소가 조운선의 주요 기착지 중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특히 고평소에

2) 정영현, 「고려 우왕대 왜구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23, 2008, 181~182쪽.

3) 한정훈, 「고려말 왜구의 섬 침략과 군사적 대응」, 『도서문화』 63, 2024, 58~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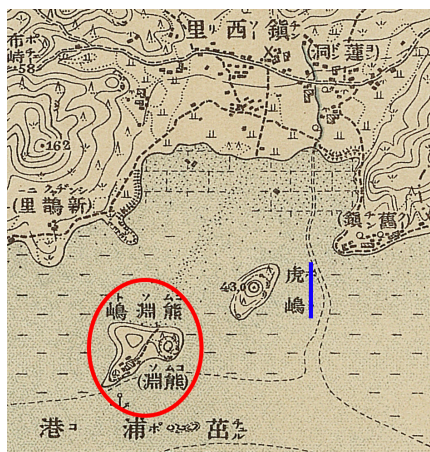
4) 오기승, 「고려 말 수군역량 정비에 대한 고찰」, 『지역과 역사』 57, 2025, 31쪽.

5) 양해웅, 「조선시대 전라도 읍성의 체성 축조방법」, 『역사학연구』 71, 2018, 34~35쪽.

이러 '꾸러서 신는' 행위는 항구의 하역(荷役)과 연관한다면 물류, 즉 운송과 보관 활동을 의미할 수 있다. 비록 장성·고창의 대동미를 다음 해부터는 법성창으로 납입시켰지만⁶⁾ 고종 5년(1868) 기록에 웅천(熊川)으로도 표기된 곰소가 여전히 조운의 주요 기착지로서 기능함은 보여준다.

이러한 곰소는 조선 후기 지방지도류를 보면 해도(海島)로 나타난다. 18세기 중엽인 영조 26~27년(1750~51)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 뿐만 19세기에 제작된 「광여도」에도 섬이라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후 고종 연간의 「부안검모포지도」(1872)에 따르면 검모포진영의 전면에 홍도(紅島), 호도(虎島)와 함께 곰소란 명칭이 나오며 모두 육지화 된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곰소에는 민가가 그려져 있으며, 나룻배를 매어놓고 진선(津船)이라 표기해 놓아 사람이 살던 나루였다고 볼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종 연간 이전에 곰소가 연륙화가 되었던 것일까? 그러나 「부안검모포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곰소와 함께 등장하는 호도에 대해서 “밀물에는 강을 이뤄 수심이 5척이 되고, 썰물에는 육지가 된다(潮進成江 水深爲五尺 潮退成陸)”고 적었다. 이럴 경우 이런 상황은 범섬(虎島) 뿐만 아니라 곰소도 해당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조 15년(1791)에도 검모진은 격포를 거쳐 항만을 따라 40리나 들어간 물이 다한 곳에 수군진이 설치되었기에 땅은 평평한 육지로서 바다와는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나올 정도였다.⁷⁾ 하지만 이후의 「일제시기 지도」(1918)에는 여전히 곰소는 섬으로 표기되었는데 최남선의 『심춘순례』에도 ‘교체도(交替島)’라 하였다.



〈그림 1〉「일제시기 지도」(1918)의 곰소

월명암에서 곰소까지가 20리, 진서리에서 염막 틈으로 개땀을 밟고 두어 마장이나 나가면 '웅연(熊淵)'이라고 쓰는 하나의 교체도(交替島)를 해변에서 만난다. 줄포항과 같이 조수의 차가 심한 곳에는 밀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었다가 빠지면 육지와 연결되는 섬이 있으니, 이것을 지금 교체도라 불러본 것이다. 진서리 앞에 교체도가 둘이 있어서 왼쪽은 범섬(虎島), 오른쪽은 곰소[熊淵]라고 일컬으니, 하필 곰과 호랑이 양자로서 연관하고, 또 웅연이 선박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실용처가 되는 것은 단군설화하고 무슨 교섭이 있음직한 명명이다.⁸⁾

즉, “밀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었다가 빠지면 육지와 연결되는 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곰소는 언제쯤

6) 같은 내용의 『일성록』 정조 21년 6월 4일에는 웅연에서 다시 꾸러 신는 이유를 “(홍덕) 사포는 굵은 만이나 큰 배가 운항하지 못하여 작은 배로 차례로 나누어 싣고서 30리 떨어진 웅연에 이르러서야 곡식을 꾸러서 신는다(沙浦卽海曲也 大船不能運下 以小船次次載 至三十里熊淵 始爲裝載)”고 하였고, 웅연의 문제점도 “또 웅연은 본래 좀벌레가 많기 때문에 배가 정박하였을 때 걸핏하면 충해를 입는다(且熊淵本多蠹蟲 故船隻留泊之際 輒致蟲傷)”고 언급하였다.

7) 『정조실록』 33, 정조 15년 8월 10일. “黔毛鎮由格浦緣港四十里 設鎮於水盡處 地是平陸 距海絕遠”

8) 최남선 지음·심춘독회 엮음, 『쉽게 풀어 쓴 심춘순례』, 신아출판사, 2014, 138쪽.

완전 육지화 하였을까? 그것은 줄포항에 토사가 쌓이면서 대체 항구가 필요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곰소에 항구를 만들기 위하여 1938년부터 5년여에 걸쳐 연동-범섬-곰섬-까치섬 [鵜島]을 연결하여 제방을 쌓고 곰소항을 만들었는데⁹⁾, 이는 태평양전쟁 당시 농산물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반출하기 위한 조치이자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칠산 바다의 어업 자원 획득에 필요한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였다.¹⁰⁾ 하지만 「일제시기 지도」(1918)에 곰소 바로 아래 큰 글씨로 ‘줄포항’이라 표기된 것을 보면, 줄포의 대체로서 항구 기능은 이미 그보다 앞선 시기임은 간파할 수 있는데, 최남선의 『심춘순례』(1925)에도 “지금 우선(郵船) 회사의 정기선도 또한 여기까지를 소항점(溯航點)으로 정했다”¹¹⁾고 하여, 일정 규모의 근대 선박들이 물길을 거슬러 항행할 수 있는 끝 지점이 곰소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최남선은 더 나아가 곰소를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곰소란 지명을 단군신화 속의 ‘곰 신앙’과 연결하였던 것이다. 즉, 곰소가 과거부터 신성한 장소로서 ‘곰 부족’의 흔적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단순한 자연 지형이나 지명이 아니라, 고조선 건국의 신화적 기원을 설명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범섬을 호랑이(범)와 연결시켜 신화적 현장성을 더욱 강조하였다.¹²⁾

이것은 일본의 지질학자인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 1856~1935)가 1903년에 한반도 형상을 토끼 모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한반도의 연약함이나 나약함을 연상케 하는 의식이 만연되자 최남선이 한반도를 포효하는 호랑이 형태라고 반박하였던 점과 연결하면 당대의 민족적 의식의 고양이라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적 관점에 이르면 이런 일제 시기의 ‘민족주의적 상상’이 실증적인 검토 없이 수용되면, 이는 결국 지역사가 실상보다는 상상적인 정보에 오염되어 ‘만들어진 전통’이 생산됨을 뜻한다. 따라서 지역사 연구자들은 스스로의 자각과 재검토를 통한 부안의 실제적 문화콘텐츠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명으로서 곰소[熊淵]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록들이 주목된다.

還旱……今夜行熊淵祈雨祭(『홍재일기』, 1892년 6월 12일)

兵船二隻 昨過熊淵(『홍재일기』, 1894년 4월 22일)

今夜行雩於熊淵云(『홍재일기』, 1903년 윤5월 21일)

위의 『홍재일기』에도 곰소가 3번 언급되는데 우선 1894년의 “병선 2척이 어제 곰소를 지나갔다”는 내용은, 곰소가 여전히 해로 상 기항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달리 나머지 내용은 곰소와 기우제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1892년의 경우 이미 6월 1일과 6일에 “가뭄과 더위로 매우 괴로워(旱災甚苦)”, 6월 8일 “밤에 성황단에서 기우제를 거행(今夜行祈雨祭城隍壇)”하여 6월 10일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

9) 김형주, 『부안 땅이름 · 마을이름 속의 역사문화이야기』, 도서출판 밝, 2013, 414쪽.

10) 정재철, 「검모포진과 곰소만을 지켜온 사람들」, 『부안이야기』 25, 2021, 14쪽.

11) 최남선 지음 · 심춘독회 엮음, 앞의 책, 138쪽.

12) 표정옥, 「최남선의 『심춘순례』에 나타난 전북의 신화적 장소성과 민족주의적 상상」, 『전북학연구』 15, 2025, 49쪽.

고(暮雨益大)”, 11일 “새벽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曉雨大作)”고 하였지만 위의 6월 12일처럼 도로 가물어 밤에 기우제를 고평에서 행했던 것이다.

이 당시의 상황은 6월 20일에 “가뭄이 무자년(1888) 보다 심하다(旱色甚於戊子)”는 표현으로 여실히 확인된다. 그래서 6월 21일에 “어젯밤에 계화도에서 기우제를 거행했다(昨夜行祈雨祭於界火島)”, 6월 22일 “오늘 밤에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거행한다(今夜行祈雨祭於社稷壇)”, 6월 27일에 “개암사 불상이 읍내 객사에 내걸렸다(開岩寺佛像 掛於邑內客舍)”고 하였고, 윤6월 1일에는 “어젯밤 계화도에서 기우제를 행했고……객사에 가서 무녀가 용을 그려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昨夜行界火島祈雨祭……往客舍 見巫女祈雨祭於畫龍)”고 할 정도였다. 가히 필사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1903년의 일기에도 윤5월 8일에 “가뭄기가 매우 심하여 들에 나가니 들녘에 물이 없고, 물고기 도 모두 물 마른 데에 있다(旱氣尤甚 出野 野無白水 魚盡處涸矣)”거나 10일에도 “가뭄이 너무 심하니 농부를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노인네로 만든다(旱既太甚 農夫便作無事 閒翁)”고 했고, 17일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여 현감이 스스로 변산에서 기우제를 맡았다(旱既太甚 本官自當祈雨於邊山)”고 적었다. 그리고 위의 기록처럼 밤에 고평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다. 이 이후로도 기우제를 2번 더 지내고 계화도에서 세 번째 기우제도 준비하였지만 다행히 6월 6일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려 다음 날 “낮에 나가서 들을 보니 들 물이 하늘을 잇고 바다를 이었다(午出觀野 野水連天連海)”고 할 정도로 해갈을 맞이한 듯하다.

결국 당대의 농지가 천수답(天水畝)인 관계로 오로지 빗물에 의지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럴 경우 부안의 관서와 지역민들이 행할 최후의 방안은 기우제였으며, 이때는 승려뿐만 아니라 무당까지도 동원되었으며, 기우제를 위해 읍내 성황단, 사직단 및 변산, 계화도 및 고평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이후 고평이라는 지명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좌산내면 웅연리(熊淵里)로 나오는데 「일제 시기 지도」(1913)에는 ‘고무수(古茂水)’라고 표기되었다. 이를 언뜻 보면 고평에 대한 일본식 발음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같은 지도에 진동리와 진서리를 ‘동거무진(東巨茂津)’과 ‘서거무진(西巨茂津)’으로 표기한 것을 보아 당시 지역민들이 검모진은 ‘거무진’으로, 고평은 ‘고무수(수)’로 발음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일제시기 지도」(1918)에 웅연(熊淵)으로 표기되었고, 『지리지』(1917)에도 웅연리(熊淵里)로서 속칭은 ‘곰소’라 적었다.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과 『부풍승람』(1932)에도 진서리 소속 웅연리(熊淵里)였다. 정부 수립 이후의 기록인 『지명조사첩』(1957)¹⁴⁾에는 진서리 고평으로, 『지명조사첩』(1959)도 진서리 고평으로서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현재는 육지”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1981)에는 고평=웅소(熊沼)=웅연(熊淵)=웅연도(熊淵島)로, 『전북전래지명총람』(1993)은 고평[熊淵=熊沼=熊淵島]로 적었다. 『부안향리지』(1991)에는 고평 1, 2, 3, 4리와 염전(鹽田)

13) 1873년 12월~1875년 8월까지 부안현감을 지낸 이현영(1837~1907)의 기록에도 부안의 기우제 장소를 사직단, 성황단, 웅연, 실상사주(實相寺湫), 계화도웅추(界火島龍湫)라고 하였다. (『경와집략(敬窩集略)』 상, 「부풍집략(扶風集略)」 추(秋), 기우제축문(祈雨祭祝文))

14)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첨부된 지도 하단의 도면에 “미 국동군 및 미 제8군 공병부 지시 하에 미 국동사령부측 지부에서 작성된 것임. 1957년에 멀티플렉스 방법으로 편집되었음”(부안, 출포)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1957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김병남, 『문헌으로 추적하는 부안의 마을 지명 ❶』, 부안문화원, 2024, 74쪽)

마을로 구분했으나 현재 법정리인 곰소리는 곰소 1, 2, 3, 4, 5의 행정 마을로 재편되었다. 이처럼 곰소는 해방 후에도 200여 톤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로서 1958년에는 어업조합과 부두노조가 줄포에서 옮겨와 군산에 이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곰소항도 토사로 인해 기능이 위축되어,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주요 시설들을 1987년 1종항으로 승격된 격포항에 내주었다.¹⁵⁾

3. 진서리 검모포와 주변 마을의 형성

3.1 검모포진의 형성과 변천

검모포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구진’이란 지명을 살펴봐야 하는데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구진리(舊鎭里)로 나온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조선 후기 정조 연간에는 본래의 검모진이 구진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고종 연간의 「부안검모포지도」(1872)의 상단 기록에 “응정 원년(1723)에 금설원평으로 진을 옮겨지만 앞서의 진지가 없어서 상고할 수가 없다(雍正元年移鎭於金說院坪 而以前鎭誌 尙無可考者)”고 나와 검모진에서 금설원평으로 옮겨간 시기를 경종 3년(1723) 정도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검모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문헌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고려사』이다.

倭侵黔毛浦 焚全羅道漕船 時倭寇爲梗 漕運不通(『고려사』 39, 「세가」 39, 공민왕 7년 7월 임술)

위와 같이 공민왕 7년(1358)에 왜구가 검모포에 침입해 전라도 조운선을 불태웠고, 이로 인해 조운이 막혔다고 나온다. 그리고 「나세전」에 왜구가 곰소[熊淵] 정박 후 침입 과정을 보면, 곰소와 검모포가 고려 시기 주요한 해상 거점이자 기항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왕 4년(1378) 8월부터 왜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과정에서 부안 지역의 군사적 가치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 왕조에 들어서도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관방 항목에 검모포가 부안현 남쪽 용연에 있다고 나타나는 것이다.

조선 초기 검모포의 중요성은 태종 8년(1408)에 “흥덕진 근처의 검모포(興德鎭近處黔毛浦)”¹⁶⁾로 나타나며, 세종 4년(1422)의 검모포만호(黔毛浦萬戶)¹⁷⁾와 세종 7년(1425)의 검모포도만호(黔毛浦都萬戶)¹⁸⁾ 등으로 알 수 있다.

黔毛浦在扶安縣南熊淵[鎭中船四艘 別船四艘 軍四百五十五名 梢工四名](『세종실록』 151, 지리지 전라도 관방)

關防一 黔毛浦[兵船泊立](『세종실록』 151, 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부안현)

15) 허철희, 「진서면의 땅이름」, 『부안이야기』 25, 2021, 24쪽.

16) 『태종실록』 16, 태종 8년 9월 17일.

17) 『세종실록』 17, 세종 4년 8월 13일.

18) 『세종실록』 27, 세종 7년 2월 25일.

이러한 태종~세종 연간 검모포가 수군 기지로서 활용되는 사정을 위의 『세종실록 지리지』는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다.

放 …… 黔毛浦充軍守叱仇未 · 於里同(『세조실록』 4, 세조 2년 5월 23일)
黔毛浦充軍車戒達 · 金元德 …… 放送(『성종실록』 18, 성종 3년 5월 25일)
放 …… 黔毛浦充軍崔閔正(『성종실록』 41, 성종 5년 4월 17일)
放 …… 黔毛浦充軍姜戒宗(『성종실록』 52, 성종 6년 2월 14일)
放黔毛浦充軍姜繼宗(『성종실록』 56, 성종 6년 6월 6일)
放 …… 黔毛浦充軍李將軍(『성종실록』 217, 성종 19년 6월 28일)

이어 세조~성종 연간의 검모포 충군(充軍)의 방면 사례 또한 평면적으로는 검모포진의 유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런데 충군이란 군에 보충한다는 것이니 군역을 수군으로 복무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 초기 이래 수군은 가장 괴롭고 위험한 군역이었다.¹⁹⁾ 전투로 인한 사상과 해상 사고의 위험도 높았고, 익숙하지 않은 선내 생활로 병에 걸리는 일도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수군은 평소에도 소금 생산이나 어업 등에도 종사해야 했는데 이것은 수익성이 높았기에 수군에 대한 침탈과 각종 비리를 낳는 온상이었다. 그러나 수군 사역은 군량 절감과 병사 관리란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고, 군량 비축 자체가 영리 사업이 되면서 수군은 더욱 혹사당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해난 사고로 인해 사망 위험이 높은 군역인데 사역까지 가혹해지자 수군은 더더욱 기피하는 바가 되어 대립(代立)이 성행하였던 것이다.²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를 수군역으로 보충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위의 수질구미, 어리동, 차계달, 김원덕, 최윤정, 강계종, 이장군 등 검모포진의 수군이 무슨 일과 연관되어 충군되었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군역에 징발되어 복무한 다음 ‘풀려났다[放]’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면 명령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보인다. 위의 성종 6년(1475) 기록의 ‘계종(戒宗)’과 ‘계종(繼宗)’은 다른 이름일 수 있으나 6월 6일 기록에 유독 1명만을 언급하며 방면토록 명한 것으로 추정하면, 동일 인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처럼 충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비리 자체가 힘든 수군역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黔毛浦萬戶金以章辭 上引見 謂曰 …… 萬戶當鍊卒整船, 以應緩急也(『성종실록』 267, 성종 23년 7월 2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 23년(1492) 기록에는 “검모포 만호 김이장이 외직으로 나가고자 인사를 드리니 임금이 불러보고 ‘……만호는 마땅히 군사를 훈련시키고 병선을 정비하여 급할 때 대비해야

19) 『태조실록』 11, 태조 6년 2월 11일. “各船軍官軍人 長年騎船 寄生水上 甚爲可哀 船內陸物諸緣及雜役 專以騎船軍人備用 苦役尤重 所在各官 不顧其弊 騎船軍戶徭役 指定侵勞 騎船戶因此逃散 軍數日減”

20)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계」, 『군사』 72, 2009, 77~78쪽.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검모포가 해상 방어에 필요한 수군 기지로서 여전히 중요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도 선조 36년(1603)의 전라도 검모포 전선(戰船)²¹⁾, 현종 11년(1670)의 검모포 군향(軍餉)²²⁾, 숙종 9년(1683)의 위도 수군진관 소속 검모포²³⁾, 영조 4년(1728)의 검모포 선박 왕래²⁴⁾ 등과 함께 유형원의 『동국여지지』(1656) 검모포 기록²⁵⁾을 통해 수군진의 역할을 지속하였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부안검모포지도」(1872)에 나오는 옹정 원년(1723)의 '이진(移鎭)'을 받아들이면 이후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의 검모진²⁶⁾, 『각사등록』 철종 3년(1852)의 검모진²⁷⁾, 『승정원일기』 고종 4년(1867)의 검모포²⁸⁾, 그리고 우반동 김씨의 고문서인 <소지류>(1764)의 검진(黔鎭)²⁹⁾ 등은 새로운 검모포와의 연관성도 검토해야만 한다. 여러 기록들이 검모포나 검모진을 혼용하였고, 구진과 신진이 지근거리인 점은 더욱 혼란을 야기한다.

黔毛浦鎭[在縣南五十里](『여지도서』, 전라도 부안현 진보)

黔毛浦鎭[在邑南五十里](『호남읍지』, 부안현 진보)

黔毛浦鎭[治西南五十里 有古城](『여도비지』 12, 전라도 부안현 진보)

이것은 위 영조 연간의 『여지도서』(1760)와 정조 연간의 『호남읍지』(1793), 그리고 철종 연간의 『여도비지』(1853)에 적힌 내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검모포진의 위치는 단순하다. 세 기록이 부안 읍내로부터 남으로 50리 지점인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도비지』의 '옛 성[古城]'을 주목하면, 이때의 검모포진은 신진(新鎭)을 뜻한다. 다만 1723년을 기준으로 검모포진을 구진과 신진으로 확연히 나눌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으나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구진리(舊鎭里)와 신진리(新鎭里)가 분리된 점은 「부안검모포지도」(1872) 상단의 기록에 신뢰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구진'이란 지명은 앞서 언급한 『호구총수』 이후에는 「부안검모포지도」(1872)에 나오고, 본격적으로는 『홍재일기』에서 나타난다.

仄間格浦之役畢 而七邑糟倉更設於旧陣云 時僉使朴原陽(『홍재일기』, 1873년 9월 30일)

21) 『선조실록』 164, 선조 36년 5월 22일.

22) 『현종개수실록』 23, 현종 11년 10월 3일.

23) 『숙종실록』 14, 숙종 9년 윤6월 10일.

24) 『영조실록』 18, 영조 4년 6월 17일.

25) 『동국여지지』 5상, 전라도 부안현 산전. “濟安浦 又名柳浦 在縣南五十里 卽興德縣沙津浦下流 其下稱黔毛浦 又爲王浦 西連大海 高麗初 定號爲濟安”

26) 『승정원일기』 895, 영조 15년(1739) 8.11. “扶安之格浦·黔毛鎭”

27)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철종 3년(1852) 6.07. “到全羅道扶安縣黔毛鎭”

28) 『승정원일기』 2721, 고종 4년(1867) 12.22. “扶安縣黔毛浦”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2』-부안 부안김씨편-, 1998, 89쪽. <소지류 19 1764년 9월(영조 40)> “故三四年來黔鎭戰 缸改造三四次斫去”

旧陳槽倉事運木色吏出來(『홍재일기』, 1873년 11월 15일)

往旧陳稅米納上 則忝司可爲正捧云(『홍재일기』, 1874년 1월 24일)

往營田 見金友取京 偕往舊鎮 逢金友明國醉來 雨中入柳川(『홍재일기』, 1893년 3월 9일)

이에 따르면 지명을 각기 구진(旧陣, 旧陳) 또는 구진(舊鎭)이라고 썼다. 내용은 1893년 9월에 “들으니 격포의 공사를 마치고 구진에 7읍의 조창을 다시 설치한다고 한데는데 첨사가 박원양³⁰⁾”, 11월에 “구진에 조창을 짓는 일로 운목색리가 왔다”, 그리고 1874년에 “구진에 가서 세미를 상납하는데 첨사가 정봉하였다고 할 만하다더라”와 같이 조창과 관련된 것이 3건이다. 1893년의 내용은 “영전에 가서 친구 김취경을 만났고, 함께 구진에 가서 친구 김명국을 만나 취해서 돌아오다가 빗속에 유천에 들어갔다”고 하여 영전(보안면 영전리 영전)→구진(진서면 진서리 구진)→유천(보안면 유천리 유천)으로의 노정을 보여준다.

구진이란 지명은 이후 「일제시기 지도」(1913)에 구진(舊津), 「일제시기 지도」(1918)에 구진(舊鎭)으로 각기 표기되었으며, 『지지조서』(1917)에는 진서리의 구진리(旧鎭里)로 나오는데 비고란에 “구진, 진동, 진서를 통칭하여 진서”라 한다고 적었다. 최남선의 『심춘순례』(1925)에도 검모포진(黔毛浦鎭)이 언급되었는데, 『지명조사철』(1957)에는 진서리 구진(舊鎭)으로, 『지명조사철』(1959)도 진서리 구진(舊鎭)이라 하면서 “조선시대 군 주둔지(진)였는데 진서리에 신진이 생겨 구진이라 불렀다”는 유래를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에 이르러 진서리 구진이라는 마을과 함께 구진 뒤에 있는 검모포진(黔毛浦鎭)터=거무진터를 분리하였는데³¹⁾,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구진 마을과 거무진(黔毛浦鎭)터를 따로 적었다.

한편, 구진 마을과 연동하는 진동, 진서 마을은 「부안검모포지도」(1872) 상단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진을 옮기기(移鎭, 1723)” 전까지 본래 금설원평이라 불린 곳이었다.

金設院[在縣南](『신증동국여지승람』 34, 전라도 부안현 역원)

이와 관련하여 위의 기록에만 부안의 역원 중 하나로 금설원이 나온다. 하지만 ‘현의 남쪽에 있다’고만 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의 곰소염전 북쪽 들판을 금설원평으로 보아 지금의 진서리 옛 진서초등학교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³²⁾ 『부안향리지』(1991)는 진터에 진서초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1932년이라고 하였다.

어쨌든 『호구총수』(1789)에 따르면 좌산내면에 구진리(舊鎭里)와 신진리(新鎭里)란 지명이 모두 등장한다. 이 시기에 이르면 두 곳이 각기 별개의 마을을 형성하였음을 뜻한다. 이럴 경우 진동과 진서 마을은 모두 신진리와 관련된다.

30) 갑신정변의 주역 박원효의 아버지인 박원양(朴元陽, 1804~1884)이다. 『고종실록』의 고종 11년(1874) 12월 16일 기록에 법성전 전첨사(法聖前前僉事)로 나온다.

31) 한글학회 편, 『한국지명총람』 11(전북편) 상, 1981, 380쪽.

32) 허철희, 앞의 글, 27쪽.

「부안검모포지도」(1872)에 신검모포 진영(鎭營) 건물 주변으로 동리(東里)와 서리(西里)가 표기되었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좌산내면 진서리(鎭西里)와 진동리(鎭東里)로 나타난다. 이를 「일제기 지도」(1913)는 서거무진(西巨茂津)과 동거무진(東巨茂津)으로 표기하였는데 이후 『지지조서』(1917),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부풍승람』(1932)에는 모두 진서리 소속 진서리와 진동리 마을로 나온다.

『지명조사철』(1957)에서는 진서리 진동(鎭洞)과 진서(鎭西)라 하였는데 다시 『지명조사철』(1959)에 진서리 진동(鎭東)과 진서(鎭西)로 나온다. 『한국지명총람』(1981)은 진서(鎭西)=서편=진서리로 동일시하고, 진동(鎭東)은 진서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진서리 진동과 진서=서편 마을로 적었다.

3.2 연동, 백포, 작도의 현황

검모포진 주변인 연동 마을은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연동리(蓮洞里)라 나온다. 우반동 김씨의 <소지류>(1865)에도 좌산내면 연동(蓮洞)이 보인다.³³⁾ 그리고 「부안검모포지도」(1872)에는 동리(東里)의 북쪽에 연동이 표시되었다.

蓮洞鄭東轍葬來日(『홍재일기』, 1867년 4월 18일)

蓮洞鄭寡婦 與鄭善汝·李益和來到(『홍재일기』, 1867년 7월 11일)

蓮洞李友益和來到即去(『홍재일기』, 1868년 9월 26일)

蓮洞崔碩士來去(『홍재일기』, 1888년 7월 2일)

左山內蓮洞居筆商朴書房來宿(『홍재일기』, 1895년 12월 20일)

自本邑左山內蓮洞崔德贊家來云(『홍재일기』, 1903년 윤5월 14일)

蓮洞門前畚乾芸(『홍재일기』, 1903년 윤5월 16일)

위와 같이 『홍재일기』에도 이른 시기부터 연동이 나오며, 1895년과 1903년에는 좌산내면 연동이라고 적시하였다. 1903년의 전주 최씨로 추정되는 최덕찬을 고려하면 1888년 최 석사가 거주한 연동 마을도 좌산내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주 최씨 외에도 연동에는 정씨, 이씨 등도 거주하였고, 아울러 1903년 윤5월의 “연동 문전답에 마른 김매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건대 기행현 집안의 전답 또한 연동에 일부 있었던 것도 파악된다.

연동과 전주 최씨의 관련성은 석동 류절재 소장의 <전주최씨문중 화수계안(花樹契案)>(1917)에 최두영(崔斗榮)의 거처를 ‘부안 연동(蓮洞)’으로 적었고, <석동재 회문(回文)>(1923)에도 연동(蓮洞) 거주자로 최익홍(崔翊洪), 최노홍(崔魯洪), 최경홍(崔鏡洪)이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좌산내면 연동리(蓮洞里)로 나오고, 「일제시기 지도」(1913)는 연동, 「일제시기 지도」(1917)는 진서리 연동이라 표기하였다. 『지지조서』(1917)와 『신구대조 조선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2』-부안 부안김씨편-, 1998, 170쪽. <소지류72 1865.4.(고종 2)> “立下面愚東里……左山內蓮洞……儉賣芋田”

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은 진서리의 연동리이고, 『부풍승람』(1932)은 진서리 원연동(元蓮洞)이다. 『지명조사철』(1957)과 『지명조사철』(1959)도 진서리 연동이고, 『한국지명총람』(1981)과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마찬가지로이다.

다음 백포 마을은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백포리(白浦里), 「부안검포포지도」(1872)에는 백포(白浦)로 나온다.

白浦白蝦俎商崔姓人來 二器小麥五升給(『홍재일기』, 1911년 6월 30일)

『홍재일기』에도 딱 한 번 언급되는데 “백포의 새우젓 장수인 최씨가 왔기에 2그릇에 보리 5되를 주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이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을 비롯하여 「일제시기 지도」류, 『지리지』(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부풍승람』(1932) 등에 일체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석동 류절재의 <전주최씨문중 회문(回文)>(1940)에 백포(栢浦) 최재영(崔再榮)이 보이는데, 이후 『지명조사철』(1957)에 진서리 백포(栢浦)로, 『지명조사철』(1959)에는 “마을 주변에 잣나무가 많다하여 백포(栢浦)”가 되었다는 유래를 적었다. 따라서 본래 쓰던 흰 ‘백(白)’자 대신에 잣 ‘백(栢)’자로도 마을 이름을 썼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지명총람』(1981)은 진서리 백포(白浦)=백개, 『전북전래지명총람』(1993)은 진서리 백개[白浦]라 적었고, 또 백포 마을에서 석포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백치(栢峙)라 하면서 이를 백재=백치=포치(布峙)라고도 불렀다고 하였다.³⁴⁾ 「일제시기 지도」(1918)에만 포치(布峙)가 진서리에서 석포리 용동 마을로 가는 길의 중간 지점 고개(해발 58m)로 표기되었고, 『지리지』(1917)에도 포치라는 고개 이름이 보이는데 현재의 <카카오맵>에 대입하면 ‘배틀재로’라고 추정된다. 현재는 『부안향리지』(1991)와 김형주(2013) 등이 다시 백포(栢浦)라는 지명으로 적고, 주변의 용산, 서당골, 덕암을 합쳐서 이뤄졌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작도는 『호구총수』(1789)에 보이지 않지만 『각사등록』 현종 2년(1836)³⁵⁾에 작도(鵲島)라고 나온다. 그런데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좌산내면의 신작도(新鵲島)와 구작동(舊鵲洞)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지리지』(1917),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일제시기 지도」(1918)에 모두 신작리(新鵲里)와 구작리(舊鵲里)로 나오는데 『부풍승람』(1932)은 신작당(新鵲堂)과 구작당(舊鵲堂)으로 적어 운호리 작당과 혼란을 야기한다.

『지명조사철』(1957)은 구작리=작도(鵲島)와 신작리(新鵲里)=신장리라 하였는데 『지명조사철』(1959)은 신작리(新鵲里)와 구작리(舊鵲里)를 모두 삭제하고 오로지 작도(鵲島)만 지명으로 적으며 “마을 지형이 까치 형태”에서 유래를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한국지명총람』(1981)이 작도(鵲島)=간치섬이라 하였고,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간치섬[鵲島]라 하였다.

『부안향리지』(1991)는 고려시대에 자기를 만들어서 작도(作陶) 즉, 그릇 만드는 마을이라 불렀다고

34) 한글학회 편, 앞의 책, 381쪽.

35)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현종 2년(1836) 05.06. “二十二日 來泊扶安鵲島”

주장하였지만³⁶⁾ 김형주(2013)는 이는 억지이고 지명 생성의 원리를 모르는 말이라고 일축하였다.³⁷⁾ 현재 연동, 백포, 작도 마을 등에 40여 개소의 가마터가 산재하는데 바로 부안 진서리 요지(사적 제70호)이다. 수습된 유물은 대체로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³⁸⁾, 가마의 운영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4. 석포리와 운호리의 이해

4.1 석포리의 형성

현재 석포리는 석포1~2와 용동, 입암, 원암의 5개 행정 마을로 구분된다. 그중에 석포 1과 2마을은 모두 석포리에서 분리되었던 바 『호구총수』(1789)의 좌산내면 석포리(石浦里)에 해당한다. 『홍재일기』에도 석포(石浦)라는 지명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逢石浦許準字敬道詩號蘭坡(『홍재일기』, 1867년 4월 16일)

往石浦 外再從金一黠家宿(『홍재일기』, 1886년 9월 24일)

石浦外再從金壹黠來去(『홍재일기』, 1869년 2월 10일)

石浦外再從弟金万肖來(『홍재일기』, 1881년 1월 28일)

驅牛負租 往石浦宿(『홍재일기』, 1881년 윤7월 22일)

石浦許友正文來去(『홍재일기』, 1882년 2월 10일)

石浦趙哥來宿去(『홍재일기』, 1883년 12월 18일)

往石浦戚弟金萬肖家米留置而來(『홍재일기』, 1889년 8월 24일)

往石浦外戚金万肖家宿(『홍재일기』, 1903년 10월 13일)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기행현은 석포에 사는 허준, 허정문 등과 교류 관계였고, 외가 쪽으로 김일묵(金一黠, 金壹黠), 김만초(金万初, 金万招, 金万肖, 金萬肖, 金万尙) 등과도 긴밀히 왕래하였다. 그리고 1881년 일기에는 기행현의 상업 행위에 대해 적었는데 7월에 직접 “소를 몰아 나라를 싣고 석포에 가서 잤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해의 일기 중에는 기행현의 적극적인 미곡 매매 노력이 여러 번 적혀 있다.

負禾驅牛 往格浦陣賣來(『홍재일기』, 1881년 윤7월 12일)

驅牛負米去 失音肆米貴(『홍재일기』, 1881년 8월 10일)

驅牛負米 往馬浦宿(『홍재일기』, 1881년 9월 25일)

36) 부안군, 『부안향리지』, 1991, 680쪽.

37) 김형주, 앞의 책, 419쪽.

38) 부안군·전북문화재연구원, 『흙으로 빛은 보물 부안 청자』, 학연문화사, 2009, 286~291쪽.

즉, 이미 앞선 윤 7월 17일에도 “벼를 짚어진 소를 몰고 격포진³⁹⁾에 가서 팔고 왔다”고 하였고, 다시 8월 10일에 “소를 몰아 쌀을 싣고 갔는데 실음장터 점포에 쌀이 귀했다”⁴⁰⁾거나 9월 25일에도 “소를 몰아 쌀을 싣고 마포에 가서 잤다”고 나온다. 이를 통해 석포뿐만 아니라 격포(변산면 격포리 격포), 실음(보안면 신복리 실음거리), 마포(변산면 마포리 마포) 등지로도 움직였음이 드러난다.

또한 1883년 일기에는 “석포의 조가(趙哥)가 와서 자고 갔다”고 적었는데 같은 달 25일에 “조가가 소금을 짚어지고 와서 머물렀다(趙哥負鹽來留滯)”고 한 내용과 연결하면, 석포 마을과 소금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1950년대 초까지도 석포의 바로 앞인 관선불(운호리 관선) 앞 갯벌에서 별똥 방식의 소금을 구웠다⁴¹⁾는 점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한편, 『홍재일기』에 이어 『민장치부책』(1901)에도 좌산내면 석포리(石浦里, 4.19., 4.21.)가 보이고,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도 좌산내면 석포리가 나온다. 『일제시기 지도』류에도 모두 석포리로 표기되었고, 『지리지』(1917),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부풍승람』(1932)도 마찬가지이다.

양 『지명조사철』도 석포리 석포(石浦)였는데 『지명조사철』(1959)에 “마을 전답을 막론하고 돌이 많아서” 불렸다는 유래가 적었다. 이에 따라 『한국지명총람』(1981)에는 석포(石浦)=돌개=돌개라 하였고, 『전북전래지명총람』(1993)은 돌개=돌개[石浦]라고 적었다. 『부안향리지』(1991)도 마을 앞 돌다리 밑까지 조수가 왕래하였다 전해져 돌이 많은 갯가 마을이란 뜻으로 돌개=석포가 되었다고 하였던 바 이는 김형주(2013), 허철희(2021)도 취신하였다.

다음 용동 마을은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용동리(龍洞里)로 나온다.

左山內面龍洞宋恒淳書來 租價十兩持來(『홍재일기』, 1894년 8월 28일)

左山內龍洞張友自仲來宿(『홍재일기』, 1896년 7월 27일)

左山內用洞里 倭兵入 七女盜去云(『홍재일기』, 1908년 7월 14일)

『홍재일기』에도 용동이란 지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상서면 용동(현 상서면 용서리 용동)이고, 또 하나가 바로 위의 기록처럼 좌산내면 용동으로 진서면 지역이다. 총 다섯 번 언급되었는데 용동(龍洞)이 네 번이고, 용동(用洞)이 한 번인 바 대부분 기행현의 지인이 왔다 간 것이지만 마지막 1908년의 내용은 “좌산내면 용동리에 왜병이 들어와 7명의 여자를 훔쳐갔다더라”는 풍문을 수록하였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도 좌산내면 용동리(龍洞里)로 나온다. 『일제시기 지도』(1918)에도 용동으로 표기되었고, 『지리지』(1917),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도 용동리이다. 또 석동 류절재의 <전주최씨 별칭계(別廳契) 회문>(1914)에도 ‘용동(用洞) 최성유(崔聖有)’가

39) 이에 대해 『홍재일기』 국역본에는 “□진(□陣)”이라 하여 해석을 보류하였다.(전북대 이재연구소 편, 『국역 홍재일기 상 (1866~1894)』, 2022, 297쪽.) 원문 상으로도 진(陣)자 앞의 글자를 한 글자로 인식할 경우 이와 관련된 지명은 구진(舊陣)이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구(舊, 旧)자로 볼 여지가 희박하여 격포(格浦)의 두 글자에 대한 오기로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40) 이에 대해서도 『홍재일기』 국역본에는 “소를 몰아 쌀을 싣고 갔는데 목이 쉬었다. 쌀이 귀해졌다”고 번역하였는데(전북대 이재연구소 편, 앞의 책, 299쪽.) 이는 아마도 실음(失音)을 지명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하여 바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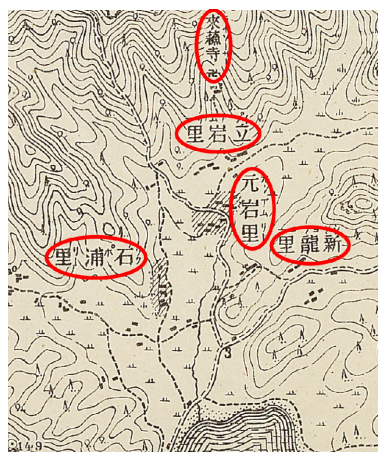
41) 김형주, 앞의 책, 423쪽.

나오는데, 앞선 진서리 연동의 류절재 고문서를 고려하면 좌산내면 용동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제시기 지도」(1913)에는 신용리(新龍里)로 표기되었고, 『부풍승람』(1932)에도 원운동리(元雲洞里)라 나온다.⁴²⁾

양 『지명조사철』도 용동(龍洞)이라 적었는데 『지명조사철』(1959)에 “동리의 산혈이 용혈”이라 유래되었다고 한 바 『부안향리지』(1991)가 이를 받아 “용이 누워있던 마을이라 용골인데 불렀는데 나중에 용동이라 고쳐 불렀다”고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 『전북전래지명총람』(1993), 김형주(2013), 허철희(2021) 등은 단순히 용동이란 지명만 언급했다.

입암 마을의 경우는 「일제시기 지도」(1913)에 입암리(立岩里), 「일제시기 지도」(1918)에 입암(立岩)으로 표기되었다. 『지리지』(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도 입암리(立岩里)인데, 『부풍승람』(1932)은 입암리(立巖里)로 적었다. 최남선의 『심춘순례』(1925)에도 입암 마을의 선돌을 언급하였고, 양 『지명조사철』도 입암(立岩)인데 『지명조사철』(1959)에 “옛날 동리 앞에 큰 바위가 서 있어 입암”이라는 유래를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과 『전북전래지명총람』(1993)은 단순히 입암(立岩)이라 했지만 『부안향리지』(1991)와 김형주(2013)는 『지명조사철』(1959)의 영향을 받은 듯이 입암(立岩)=선돌 마을이라 썼고, 허철희(2021)는 내소사 일주문 앞마을이라 ‘절골’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암 마을도 『호구총수』나 『홍재일기』에 보이지 않고 『민장치부책』(1901.4.21.)에서 좌산내면 원암리(元巖里)라 나오고, 다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마찬가지로 적혔다. 「일제시기 지도」(1913)에 원암리(元岩里), 「일제시기 지도」(1918)에는 원암(元岩)으로 표기되었고, 『지리지』(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도 원암리(元岩里)로 적었으나 『부풍승람』(1932)은 원암리(元巖里)라 하였다. 1950년대의 양 『지명조사철』에도 석포리 원암(元岩)이라 하였는데 『지명조사철』(1959)에 “마을 뒷산에 원바위가 있다”하여 불렀다는 유래담은 『한국지명총람』(1981)에 그대로 실리며,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원암(元岩)이라 적었다.



〈그림 2〉 「일제시기 지도」(1913)의 석포리

4.2 운호리의 구성

운호리는 현재 운호, 소운호, 관선, 왕포, 작당, 마동, 중마동의 7개 행정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운호 마을과 관련해서는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열운포리(列雲浦里)가 나온다. 다만 이후 관련 지명이 보이지 않다가 경남 함양 출신인 민재남(閔在南, 1802~1873)의 『회정집(晦亭集)』(1909년 간행)에 열운포가 적혔지만⁴³⁾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달리 좌산내면 대운호(大雲湖)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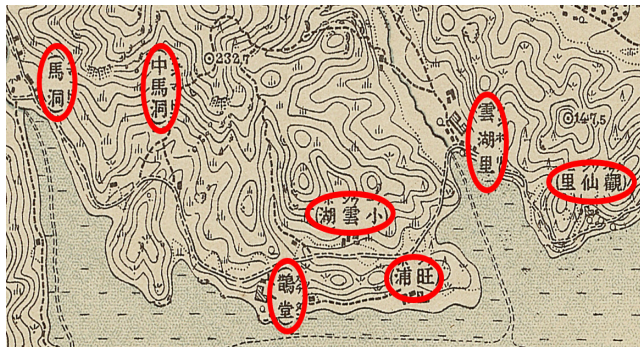
42) 임민혁 외, 『국역 부풍승람』, 부안교육문화회관, 2021, 58쪽.

43) 『회정집』 2, 시, 서유기행(西遊紀行) 이십수(二十首), 「宿列雲浦任友希麟家 復用月明菴韻」

명으로 나타난다. 『일제시기 지도』류도 모두 운호리(雲湖里)라 표기되었고, 『지지조서』(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도 운호리로, 『부풍승람』(1932)의 원운호리(元雲湖里)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지명조사철』(1957)도 운호리 운호(雲湖)이다. 『지명조사철』(1959)에는 운호리 운호와 함께 ‘열운개’라는 지명이 함께 보이는데 운호에 대해서는 “마을 앞에 호수가 있는데 자주 구름이 낀다하여 붙었다”는 유래를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 『전북전래지명총람』(1993), 허철희(2021) 등이 모두 운호=여륜개라 하였고, 다시 김형주(2013)는 운호=여륜개=여루개로 파악하였다.

다음 소운호 마을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좌산내면 소운호(小雲湖)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호구총수』 단계의 열운포리가 이후 분화하면서 소운호 마을이 생성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일제시기 지도』(1918)에 소운호로 표기되었으며, 『지지조서』(1917),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부풍승람』(1932)도 모두 운호리 소운호이다. 양 『지명조사철』에도 운호리 소운호



〈그림 3〉 『일제시기 지도』(1918)의
운호리 7개 마을

로 나타나며, 『지명조사철』(1959)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 소 자를 넣었다”고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과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소운호이다.

관선 마을은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관선불리(觀仙佛里)라 나오고, 다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이르러 좌산내면 관선리(觀仙里)라 하였다. 『일제시기 지도』(1913)에는 관선불(觀仙佛), 『일제시기 지도』(1918)는 관

선리로 표기하였다. 『지지조서』(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는 운호리 관선리이나 『부풍승람』(1932)은 다시 관선불이라 적었다. 양 『지명조사철』은 운호리 관선(觀仙)인데 “동네 뒷산에서 보면 신선대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전설 때문”이라는 유래가 『지명조사철』(1959)에 쓰여 있다. 이는 『한국지명총람』(1981)에도 그대로 실렸고,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관선이라고 나온다. 김형주(2013)와 허철희(2021)는 관선불이라는 지명을 앞세웠다.

왕포 마을의 연원과 관련해서는 유형원의 『동국여지지』(1656)⁴⁴⁾와 『반계일고(磻溪逸稿)』(1660)⁴⁵⁾에 왕포(王浦)라는 지명이 보이고, 영조 8년(1732)에도 부안현 왕포리(王浦里)⁴⁶⁾가 나온다. 당시 전라감사가 왕포리 거주 어부 장자남(張自男)이 물에 빠져 죽은 일로 장계를 올렸다는 것을 보면, 왕포가 바닷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호구총수』(1789)에는 좌산내면에 왕동리(旺東里)와 왕서리(旺西里)란 지명만 보인다. 그리고 다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이르러서야 좌산내면 왕포리(旺浦

44) 각주 24번 참조.

45) 『반계일고』, 「庚子春日 偶遊王浦 樂甚 賦得春洲三律」

46) 『승정원일기』, 영조 8년(1732) 2.4. “以全羅監司扶安縣王浦里居漁夫張自男等淪死事狀啓”

里)가 등장하고, 「일제시기 지도」(1918)는 왕포(旺浦)로 표기하였다. 이에 『지리지』(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도 운호리 왕포리(旺浦里), 『부풍승람』(1932)은 운호리 왕포(旺浦)라 적었다.

양 『지명조사철』도 모두 운호리 왕포(旺浦)라 하였는데 『지명조사철』(1959)에는 “어떤 지사(地土)가 다른 이름[名]은 동리에 해가 있으니 꼭 왕포라 부르라 하였다”는 유래를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과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왕포(旺浦)로 나온다.

작당 마을은 『호구총수』(1789)의 좌산내면 작당리(鵲堂里)이다. 이보다 앞서 조선 전기의 문헌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점필재집』(1520년 간행)에는 “법성포의 조운선 60여 척이 부안 변산 아래에 도착할 때 풍랑을 만나 작당에 정박한 34척은 온전하였으나 모항 바다 밖에 정박한 배는 모두 침몰하여 익사자가 300여 인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작당(鵲堂)이 언급되었다.⁴⁷⁾

이후 조선 후기 『각사등록』의 철종 5년(1854) 가치당포(加致堂浦)⁴⁸⁾와 함께 철종 6년(1855)⁴⁹⁾과 고종 11년(1874)⁵⁰⁾에 작당이 나온다. 그리고 고종 16년(1879)⁵¹⁾에도 좌산내면 작당리가 적시되었다. 특히 가치당포는 까치당의 한자식 표기로, 이른 시기부터 지역민들 사이에 작당과 함께 까치당이란 표현이 함께 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月初大風後 魚產大凶之中 水賊大熾 界火島 · 蠓島 · 鵲堂等地云(『홍재일기』, 1902년 3월 10일)

『홍재일기』에도 단 한 건이지만 작당이 언급되었는데 “이 달 초에 큰 바람이 분 뒤 어물[魚產]이 대흉년 중인데 수적이 활개를 치는 곳이 계화도 · 위도 · 작당 등지라고 한다더라”는 내용이다.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1897.4.25.)에 “격포에서 한 고개를 넘어 수락동 주점에 이르러 잠시 쉬다가 작당에 이르니 이곳도 역시 포구로 어살과 그물이 여기저기 있었다(自格浦踰一嶺 至水落洞店 暫爲歇脚 到鵲堂 此亦浦口也 魚箭魚網種種有之)”는 것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도 역시 좌산내면 작당리로 나오며, 「일제시기 지도」류에도 모두 작당이라 표기되었다. 다시 『지리지』(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도 운호리 작당리, 『부풍승람』(1932)은 운호리 작당으로 적었다. 이후 양 『지명조사철』도 모두 운호리 작당이라 하였는데 『지명조사철』(1959)에는 “마을의 형태가 까치집 모양 같다 하여 부른다”는 유래를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과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작당으로 나온다. 김형주(2013)는 운호리의 작당, 왕포, 관선 마을은 비슷한 해안가의 어촌 마을로, 1950년대 이전까지는 4~5월의 조기 성어기엔

47) 『점필재집』 22, 시, 古阜民樂亭 望漕船. “三月二十九日 法聖浦漕船六十餘艘 到扶安邊山下 遇風 泊鵲堂者三十四艘 皆全 泊茅項 洋外者皆敗 溺死者三百餘人”

48)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철종 5년 6월 5일 “到扶安加致堂浦”

49)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철종 6년 7월 21일. “到扶安縣鵲堂”

50)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고종 11년 6월 29일. “到扶安鵲堂”

51) 『각사등록』, 호남계록, 고종 16년 9월 16일. “到本縣左山內面鵲堂里”; 고종 16년 11월 14일. “扶安地方格浦鎮掌內 左山內面鵲堂里前洋”

마을 앞 바다에 어선들이 몰려와 잠시 파시가 형성되기도 했다고 적었다.⁵²⁾

한편, 마동 마을은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마동리(馬洞里)로 나온다. 하지만 이후 관련 지명이 보이지 않다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다시 좌산내면 마동리로 이어진다. 그런데 「일제시기 지도」(1913)에는 상마동(上馬洞)이었는데 다시 「일제시기 지도」(1918)에는 마동(馬洞)이라 표기되었다. 『지리지』(1917)와 『부풍승람』(1932)은 운호리 마동인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은 운호리 마동리이다. 1950년대 양 『지명조사철』도 모두 운호리 마동이라 하였는데 『지명조사철』(1959)에 “마을의 지형이 말과 같다 하여 부른다”는 유래를 적었다. 『한국지명총람』(1981)과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마동이다.

마지막 중마동 마을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좌산내면 중마동(中馬洞)으로 나온다. 이로 보건대 본래 『호구총수』 단계의 마동리가 마동과 중마동으로 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제시기 지도」(1913)에는 상마동(上馬洞)과 하마동(下馬洞)으로 나온다. 이를 「일제시기 지도」(1918)에 마동·중마동과 비교해 보면 그 위치가 다소 미묘하다. 상마동의 경우는 마동 지역임이 확인하지만 하마동은 작당과 함께 해안가에 표기된 데에 반해 중마동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위치한 것으로 나온다. 어쨌든 하마동을 중마동으로 인지한다면 아마도 지도 표기상의 오류일 수 있다.

『지리지』(1917)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은 운호리 중마동이지만 『부풍승람』(1932)은 운호리 중마리(中馬里)라 하였다. 1950년대 양 『지명조사철』도 모두 운호리 중마동이고, 『한국지명총람』(1981)과 『전북전래지명총람』(1993)도 중마동이다. 중마동은 문헌 기록상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이전 시기에 마동과 다른 마을을 인식된 것 같으나 정식 행정 마을로 분리된 것은 1981년 7월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다.⁵³⁾

5. 맺음말

지금까지 문헌 자료에 나오는 진서면 소관 마을 지명의 연원을 살펴보았다. 변산면에서 분리된 진서면은 형성과 함께 소관 마을의 부침과 이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마을 지명은 그대로 유지되었기에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곰소리의 곰소 즉, 웅연리(熊淵里)는 기록에 의하면 고려 때부터 항구로 기능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중요한 군사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 곰소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는 섬이라는 특징 위주로 묘사되었다. 조선 후기 지방지도류인 18세기 중엽의 「해동지도」, 19세기의 「광여도」 등에도 섬이란 특징이 부각되면서, 여러 기록은 조운의 주요 기착지라는 관점에서 곰소를 주목하였다. 이런 곰소의 특징은 정조 15년(1791)에 ‘물이 다한 곳[水盡處]’, 「부안 검모포지도」(1872)에 ‘썰물 때 물이 된다[潮退成陸]’는 기록으로 두드러지는데 최남선의 『심춘순례』(1925)에도 여전히 ‘교체도(交替島)’로 나타난다. 완전히 육지화가 된 것은 1938년부터 5년여에 걸쳐

52) 김형주, 앞의 책, 424쪽.

53) 부안군, 『부안향리지』, 1991, 704쪽.

연동-범섬-곰섬-까치섬[鵲島]을 연결하여 제방을 쌓고 곰소항을 만들면서부터였다. 해방 후에도 200톤 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로서 전성기를 누렸으나 토사로 인해 기능이 위축되면서 1980년대 말 이후에 항구의 기능이 격포항으로 이전되면서 사라진다.

다음 진서리의 검모포도 고려의 주요 해상 거점이자 기항지 중 하나였고, 조선에서도 수군 기지로서 지속적인 활용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인 경종 3년(1723)에 검모포가 옛 진서초등학교 부근에 있었던 금설원평(金說院坪)으로 옮겨졌다고 나온다. 그리고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에 구진리(舊鎭里)와 신진리(新鎭里)란 마을명이 보이는 점은 이 시기에 이르면 두 곳이 각기 별개의 마을이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부안검모포지도」(1872)에 신검모포진 건물 주변으로 동리(東里)와 서리(西里)가 표기된 것으로 보아 본래의 검모포는 구진 마을, 새로운 검모포진의 진동과 진서 마을은 모두 신진리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한편, 진서리 검모포 주변의 연동 마을은 『호구총수』(1789)에 좌산내면 연동리(蓮洞里), 백포 마을도 좌산내면 백포리(白浦里)로 나오고, 작도 마을은 『호구총수』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사등록』 현종 2년(1836)에 작도(鵲島)라고 나온다.

더불어 석포리의 석포와 용동 마을도 『호구총수』에 좌산내면 석포리(石浦里)와 용동리(龍洞里)로 나온다. 또 운호리의 운호, 관선, 마동 마을은 『호구총수』에 좌산내면 열운포리(列雲浦里), 관선불리(觀仙佛里), 마동리(馬洞里)라 하였고, 작당 마을도 『호구총수』에 작당리(鵲堂里)라 나오는데 철종 5년(1854) 기록에는 가치당포(加致堂浦)라 하여 우리말의 한자 표현 마을명이 적혔다. 그리고 왕포 마을은 『호구총수』에 앞서 『반계일고』(1660)에 왕포(王浦)라는 지명으로 나타나는 등 유서 깊은 연원을 가진 곳이 대부분이다.

참고문헌

- 『각사등록』, 『경와집략』, 『고려사』, 『광여도』, 『대동지지』, 『동국여지』, 『민장치부책』(1901), 『반계일고』, 『부안검도포지도』, 『부풍승람』, 『승정원일기』,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도비지』, 『여지도서』, 『유봉래산일기』(1897), 『일성록』, 『일제시기 지도(1/50,000)』(1913), 『일제시기 지도(1/50,000)』(1918), 『점필재집』, 『조선왕조실록』, 『지명조사철』(1957), 『지명조사철』(1959),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지지조서』, 『해동지도』, 『호구총수』, 『호남읍지』, 『홍재일기』, 『회정집』
- 김병남 (2024). 문헌으로 추적하는 부안의 마을 지명①. 부안문화원.
- 김형주 (2013). 부안 땅이름·마을이름 속의 역사문화이야기. 부안문화재단.
- 부안군 (1991). 부안향리지.
- 부안군,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흙으로 빛은 보물 부안 청자. 학연문화사.
- 양해웅. (2018). 조선시대 전라도 읍성의 체성 축조방법. 역사학연구, 71, 31-61.
- 오기승. (2025). 고려 말 수군역량 정비에 대한 고찰. 지역과 역사, 57, 5-40. <https://doi.org/10.19120/cy.2025.10.57.5>
-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 임민혁, 김혁 (2021). 국역 부풍승람. 부안교육문화회관.
- 임용한. (2009).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계. 군사, 72, 63-95. <https://doi.org/10.29212/mh.2009..72.63>
- 전북대 이재연구소 편 (2022). 국역 홍재일기(1866~1894).
- 정영현. (2008). 고려 우왕대 왜구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23, 157-202.
- 정재철. (2021). 검모포진과 곰소만을 지켜온 사람들. 부안이야기 25, 10-21.
- 최남선 (2014). 쉽게 풀어 쓴 심춘순례 (심춘독회 엮음). 신아출판사.
- 표정욱. (2025). 최남선의 『심춘순례』에 나타난 전북의 신화적 장소성과 민족주의적 상상. 전북학연구, 15, 31-55. <https://doi.org/10.59592/JBST.2025.15.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고문서집성 2-부안 부안김씨편-.
- 한글학회 편 (1981). 한국지명총람 11(전북편) 상.
- 한정훈. (2024). 고려말 왜구의 섬 침략과 군사적 대응. 도서문화, 63, 35-62. <https://doi.org/10.22917/island.2024..63.35>
- 허철희. (2021). 진서면의 땅이름. 부안이야기 25, 22-35.
-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n.d.).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angyeilgo』, 『Buanminjangchibuchaeg』(1901), 『Bupungseungnam』, 『Catalogue of Administrative Names of Korean Empire』, 『Catalogue of New and Ancient Village Na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Daedongjiji』, 『Donggukyeojiji』, 『Gaksadeungnok』, 『Goryeosa』, 『Gyeongwajipryak』, 『Hoguchongsu』, 『Honam-eupji』, 『Hoejeongjip』, 『Hongjaellgi』, 『Ilseongrok』, 『Jeompiljaejip』, 『Jijijoseo』, 『Map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50,000)』(1913), 『Map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50,000)』(1918), 『Place name survey document』(1957, 1959), 『Sinjeungdonggugyeojiseungnam』,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Travel Diary of Bongrae Mountain』(1897), 『Yeodobiji』, 『Yeojidoseo』
- Buan County (1991). Buan Hyangliji.
- Buan County (2009). Buan Celadon, a treasure made of clay. Hakyoon Publishing.
- Choi, Nam-seon (1925). Simchun Pilgrimage.
- Han, Jeong-hun (2024). Japanese Pirates Invasion of Islands and Military Response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Journal of the Island Culture, 63, 35-62. <https://doi.org/10.22917/island.2024..63.35>
- Heo, Cheol Hee (2021). The name of the land in Jinseo-myeon. Buan Story Magazine, 25, 22-35.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Yijae Research Institute (2022). Korean translation of Hong Jae-ilgi (1866~1894).
- Jeong, Jae-Cheol (2021). People who have protected the Geommopo and Gomsoman. Buan Story Magazine, 25, 10-21.
- Jeong Yeong-Hyeon (2008). The Tendencies and Changes of Wakō in Period of King Uwang of Goryeo Dynasty. History & the World, 23, 157-202.
- Kim, Byung-nam (2024). The basic Place name of Buan as traced through literature 1. Buan Cultural Center.
- Kim, Hyung-ju (2013). Historical and cultural stories in Buan land names and village names. Buan Cultural Foundation.
- Lim, Yong-han (2009). The Navy and Sea-defence System in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Joseon. Military History, 72, 63-95. <https://doi.org/10.29212/mh.2009..72.63>
- Oh, Ki-seung (202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val Capabilities in the Late Goryeo Dynasty. Chiyeok Kwa Yeoksa, 57, 5-40. <https://doi.org/10.19120/cy.2025.10.57.5>
- Pyo, Jung-ok (2025). Mythological Spatiality and Nationalist Imagination in Choi Nam-seon's Simchun Sunrye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of Jeonbuk. The Journal of Jeonbuk Stud

ies, 15, 31-55. <https://doi.org/10.59592/JBST.2025.15.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8). Old document collection 2, Buan Kim's famil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81). Dictionary of Korean Place Names 11.

Yang, Hae-woong (2018).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Walled Cities of Jeolla Province in the Joseon Dynasty. Chonnam Historical Review, 71, 31-61.

Yim, Min-hyeok (2021). Korean translation of Bupungseungram. Buan Student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Yoo, Jae-young (1993). Dictionary of Jeonbuk Traditional Place Names. Minumsa Publishing.